

복음 Matthew 12:3-9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  
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  
는 흙이 니하므  
나오나 으므로 말  
는 가사 라서 가  
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흑 백배, 흑 육십배  
새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we was scatterin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the birds came and ate  
fell on rocky places, where it did not have much s  
g up quickly, because the soil was shallow. But whe  
ame up, the plants were scorched, and they witi

No. 3  
2010

**MUSIC**

*Collections from 12<sup>th</sup> Korean Worship & Music Conference*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http://www.webkam.org/journal)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3  
2010

**MUSIC**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Assistant Editor**

Sunggu Yang  
Nashville, Tennessee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St. Johns, Florida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mailto:huhp@ctsnet.edu)

Copyright©2010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http://www.webkam.org)

## Service Playing (예배에서의 오르간 연주)

Sooyeon Lee

Music director at Trinity Lutheran Church in New Haven, CT  
Chorus master of the Hillhouse Opera Company  
Accompanist of New Haven Oratorio Choir & Orchestra  
Accompanist of Elm City Girls' Choir & United Girls Choir School faculty  
Music teacher at Connecticut Saturday Korean School

예배음악에서 오르간 (또는 피아노) 연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통예배 형식에서 처음과 끝( Prelude & Postlude)을 장식할 뿐 아니라 회중 찬송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찬양대의 반주 및 헌금이나 성만찬 시에 필요한 음악을 (offertory & communion music) 대신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배에서의 오르간 연주는 전체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를 매끄럽게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워크샷은 예배 전반에 필요한 오르간 연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직접 실기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 미국과 한국에 출판되어 있는 찬송가의 대부분은 4 성부로 되어 있고, 특히 미국 찬송가들의 경우, 교회 반주자를 위한 악보가 따로 되어있어, 반주법의 다양성 없이 그대로 쳐야 하는 인식이 있지만, 유럽 특히 독일의 찬송가의 경우, 멜로디만 있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예배 반주자의 찬송가 연주방법이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 절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멜로디에 붙어 있는 strophic form 이지만, 가사의 내용이 다르듯, 찬송가 반주도 각 절이 다르게 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워크샷에서는 회중 찬송 반주 필요한 찬송가 전주 만들기, 가사 목상을 통한 다양한 화성 만들기, 전조하기 등 창조적이고도 예배 회중 찬송을 감격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논의하고 실습한다. 찬양곡 반주에서는 피아노 반주 악보를 오르간으로 치는 방법을 알아보며, 헌금이나 성만찬 시에 필수적인 organ improvisation 도 시도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가 organist 인 동시에 music director 인 경우가 많으므로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console conducting 도 다룬다.